

해외의약뉴스

궤양성 대장염, 식초로 치료할 수 있다

개요

중국 지린대학 연구진은 쥐 실험을 통해, 식초가 장내 세균변화를 유도하여 궤양성 대장염 증상을 줄인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식초는 염증 유발 단백질을 억제하고, 장내 세균을 개선하여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인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궤양성대장염, 식초, 박테리아, 염증

연구진은 전통의학에서 수 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던 식초가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결장(colon) 또는 대장(large intestine)에 염증과 궤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의 만성 형태이다.

이 질환은 궤양(ulcers), 복통(abdominal pain), 설사(diarrhea)등 갖가지 증상들을 유발하며, 크론병(Crohn's disease)이라 불리는 또 다른 염증성 장 질환과 유사하다(전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크론병은 제외).

아직까지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연구진은 소화기관 내 세균(bacteria)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지린대학 연구팀이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th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에 밝힌 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초가 염증유발 단백질(inflammatory proteins)을 억제하고, 쥐의 장 내 이로운 세균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식초가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 관련 장내 세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연구진은 식초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acetic acid)이 궤양성 대장염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들은 소량의 식초 또는 아세트산을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쥐들이 먹는 물에 타서 투여한 결과, 식초와 아세트산 모두 궤양성 대장염 증상들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초가 염증을 유발

하는 단백질과 분자 프로세스(molecular processes)를 억제함으로써, 장내 염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용 쥐들의 분변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식초는 Th1과 Th17(면역담당 T세포) 반응, NLRP3 inflammasome, MAPK signaling activation을 통해 염증을 억제하고, 유산균의 일종인 락토바실러스균(lactobacillus)과 비피더스균(bifidobacteria) 같은 몸에 이로운 세균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초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세포사멸(cell death)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가 인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Medical News Today는 뉴욕 록펠러 대학 연구팀이 소화기관 내 신경(neurons)과 대식세포(macrophages)가 함께 작용하여 염증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06423.php>